

# 朝鮮朝 內醫院의 醫書編刊 및 醫學資料室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Medical Books and the Medical Library of Naeuiwon(內醫院) in the Joseon Dynasty

金重權(Kim, Joong-Kwon)\*\*

## ◁ 목 차 ▷

- |                     |              |
|---------------------|--------------|
| 1. 緒言               | 3.2 後期の 醫書編刊 |
| 2. 內醫院의 職制와 資格 및 役割 | 4. 醫學資料室役割   |
| 3. 內醫院의 醫書編刊        | 5. 結言        |
| 3.1 前期의 醫書編刊        | <참고문헌>       |

## < 초 록 >

本考는 조선시대 내의원의 왕실 의료 활동 외에 의서편간과 자료실역할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는 의원들이 의서 편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많은 의서들을 편찬하였다는 것과 임진왜란 후인 선조 말 광해군시기에는 의서관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목활자로 간행된 의서가 10여종 이상에 달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선 초기에 교서관에서 의서를 분리하여 내의원에 소장하도록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수집한 의서도 내의원에 소장하도록 하여 의학 자료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밝히고, 당시 소장된 자료와 가장 많이 참고한 의서, 이용자 등을 상세히 밝혔다.

要語: 내의원, 의학자료실

\* 본 논문은 2008년 청주고인쇄박물관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관련 국제학술회의 「조선시대 인쇄출판기관의 변천과 발달」에서 발표한 자료임.

\*\* 光州大學校 人文社會大 文獻情報學科 教授(jkkim@gwangju.ac.kr)

접수일: 2009년 6월 4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2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ublication of medical books and the medical library of Naeuiwon(內醫院) in the Joseon Dynasty.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In the early years of Naeuiwon, doctors actively participated in compiling many medical books, and during the reigns of King Sunjo and Kwanghaegun since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in 1592 Naeuiwon was directly involved in publishing medical books to print more than 10 titles with wooden movable types.

1. More than 10 titles of medical books were published by Naeuiwon in the Joseon Dynasty.
2. In the early Joseon Dynasty, King Taejong ordered to separate only medical books from Gyoseogwan(校書館) and move them to Naeyakbang(內藥房) to be held.
3. Since then, medical books collected from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were continuously held by Naeuiwon which got to serve as a medical library.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collection at Naeuiwon as a medical library, medical books with frequent use, and their users were examined in detail.

Key words: Naeuiwon, Medical Library

## 1. 緒 言

조선조에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는 내의원과 전의감, 혜민서 등을 들 수 있다. 전의감은 정 3품아문으로 약재를 공급하거나 의생들의 교육 및 과거를 담당하였으며, 혜민서는 1392년 개국과 동시에 설치된 혜민국과 1397년에 설립된 제생원을 세조 6년(1460)에 두 기관을 통합한 뒤 1466년에 개칭하여 백성들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활동하였다. 내의원은 내약방의 명칭을 세종 때 개칭하여 왕실의 의료를 전담한 기관이었다. 내의원에 근무한 의원들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남보다 의술이 뛰어난 인물들로 배정되었다. 비록 왕실의료 기관이지만 왕실의 질병뿐만 아니라 왕이 아끼는 신하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구료해 주거나 내의원에 소장된 약재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급할 때는 시약청, 산실청, 호산청 등을 설치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했으며, 그 밖에 醫書習讀廳, 醫書撰集廳을 마련하여 의서를 읽히거나 편찬, 간행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필자의 조사결과 의서 간행은 주로 1592년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왜란의 후유증으로 서적들은 약탈당하고 불타거나 없어서 인재양성이 어려워 졌으며, 군비의 축적에도 애로가 많았다. 결국 훈련도감에서 군비축적을 목적으로 책을 간행하여 유통된 것이 훈련도감자본이라 한다면, 내의원에서도 의서의 부족현상이 생겨 의생교육이나 의술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자 의서를 간행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책 역시 기관의 명칭을 따서 내의원자본으로 명명한 것이다.

내의원자본에 관련된 연구는 필자가 1993년과 1994년 두 차례 발표하여 당시에 간행된 의서로 「食物本草」, 「諺解救急方」, 「諺解胎產集要」, 「諺解痘瘡集要」, 「醫林撮要續集」, 「纂圖方論脈訣集成」, 「東醫寶鑑」, 「簡易辟瘟方」, 「新纂辟瘟方」, 「辟疫神方」, 「新刊補註釋文皇帝內經素門」 등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sup>1)</sup> 천혜봉 선생이 내의원자에 대한 실물을 영인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1) 金重權, “內醫院의 醫書刊行,” 『문헌정보학보』 제5집(1993),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30주년 기념특집호.

강순애 교수가 2000년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sup>2)</sup>로도 발표한 바 있다. 강순애 교수는 이 연구에서 내의원의 종합적 이론은 물론 새로 발견된 「언해두창집요」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여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의서간행을 확신했음을 제시하였으며, 필자는 내의원의 의서편찬, 간행을 전기, 후기로 나누어 고찰한 뒤 후기에 간행된 의서에 대해 각각의 형태사항을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내의원자본을 확실하게 규정짓지는 못하고 다만 내의원에서 간행한 의서인 만큼 기관의 명칭을 빌어 내의원자본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았다. 차체에 훈련도감자와 내의원자본을 비교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연구하여 내의원자본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의서 편간에 대한 기존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면서 내의원의 본래의 임무 외에 의학자료실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內醫院 職制와 資格 및 役割

### 2.1 內醫院의 職制

고려시대에는 穆宗이 尙藥局을 두어 어약의 화제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sup>3)</sup> 奉御·侍醫·直長·醫佐가 있었다. 文宗이 奉御 1인(정6품), 侍醫 2인, 直長 2인, 의좌 2인, 醫針史 2인, 藥童 2인을 두었고, 忠宣王이 掌醫署로 고쳤다가 뒤에 奉醫署로 고쳐서 丞·직장·의좌를 두었다. 공민왕이 尙醫局으로 고치고 丞을 고쳐서 奉御로 하였다가 다시 봉의사로 고치고 奉醫를 고쳐서 丞으로 하였는데, 恭讓王이 典醫寺에 합하였다.<sup>4)</sup>

---

金重權, “內醫院字本에 관한 研究,” 『의서문헌정보학보 제4호(1994),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 10주년 기념논총.

2)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 『서지학연구』 제19집(2000), 34-72.

3) 『高麗史』 제77권 - 지 제31, 백관 2, 봉의서.

4) 『增補文獻備考』 제222 직관고 제사1 내의원조.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 원년(1392)에 고려제도를 답습하여 典醫監을 둔 뒤 內藥房 두어 어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세종 25년(1443) 5월에 吏曹의 啓請에 따라 內醫院로 改稱하였다. 당시 소속관원은 16명을 배정하였는데 3품은 提舉, 6품 이상은 別坐, 參外는 助教로 구분 하였으며,<sup>5)</sup> 세종 27년에는 內醫院의원들이 家病의 진료로 인해 출타가 많아 內醫院 업무에 소홀하다하여 別좌 2명을 증원한 바 있으나<sup>6)</sup> 提舉, 別坐, 助教의 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文宗 2년에 事務가 긴요하지 않은데도 정원의 수가 너무 많다하여 內醫院 別좌를 13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한다는 근거<sup>7)</sup>를 보면 세종 때에 別좌의 수가 13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世祖는 각 관제를 정비하면서 正과 僉正은 각 1명, 判官과 主簿는 각 2명, 直長 3명, 奉事와 副奉事, 參奉은 각 2명을 두도록 하였다.<sup>8)</sup> 즉, 內醫院職은 品階別로 보면 正(正三品) 1員, 僉正(從四品) 1員, 判官(從五品) 2員, 主簿(從六品) 2員, 直長(從七品) 3員, 奉事(從八品) 2員, 副奉事(正九品) 2員, 參奉(從九品) 2員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世宗때보다 1명이 감원되었지만 체계적으로 각각 품위가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종 16년(1485) 「경국대전」에 근거한 당시의 관직은 正(正三品), 僉正(從四品), 判官(從五品), 主簿(從六品)各 1人, 直長(從七品)3人, 奉事(從八品), 副奉事(正九品)各 2人, 參奉(從九品) 1人을 두었으며,<sup>9)</sup> 燕山君 12년(1506)에는 判官, 直長, 奉事, 副奉事 各 1人으로 하였고,<sup>10)</sup> 中宗때는 直長 2人을 증원하였다가<sup>11)</sup> 仁祖 23년(1645)에 다시 直長 2人을 감원하였다. 기타 직원으로 효종 2년과 顯宗 14년(1673)에 침의와 議藥同參을 증원하였으나 모두 정원이 없고, 英祖 6년(1730)에

5) 世宗實錄 卷100 世宗 25年 癸亥 6月條 “吏曹啓內藥房關係之重而以藥方稱號且其官員無名號有違古制請號內醫院置員十六人三品則稱提舉六品以上則稱別坐參外則助教從之.”

6) 「世宗實錄」卷108 世宗 27年 4月 11日(甲寅). 4집 616면.

7) 「文宗實錄」卷13 文宗 2年 壬申 4月條.

8) 世祖實錄」卷38 世祖 12年 丙戌 正月 “內醫院置正僉正各一判官主簿各二直長三奉事副奉事參奉各二.”

9) 「經國大典」吏典 正三品衙門 內醫院條.

10) 燕山君日記 卷六十日 燕山君 十二年 丙寅 正月條 “內醫院判官 直長奉事 副奉事 各一.”

11) 「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 京都下.

는 침의·의약동참을 각각 12명으로 정하였다. 吏屬은 書員 20명, 藥種書員 2명 (옛 首奴의 칭호), 擣藥使令, 薏苡使令 각 2명, 군사 8명, 水工 4명, 差備待令醫女 10명, 內醫女 12명을 惠民署에서 선발하여 채용하였으며,<sup>12)</sup> 英祖 20년에는 奉事 2명, 副奉事 2명으로 배정하였다.<sup>13)</sup>이 밖에 兼職 3員이 있는데 영의정이 例兼하는 都提調 1員과 承旨가 例兼하는 提調 1員, 副提調 1員을 두었다.<sup>14)</sup>

<表 1> 內醫院 官職 및 品階의 時代別狀況

官職 時期	正 (정3)	僉正 (종4)	判官 (종5)	主簿 (종6)	直長 (종7)	奉事 (종8)	副奉事 (정9품)	參奉 (종9)	計	典據
世宗25 세종 27	提舉		別坐					參外 助教	16 18	世宗實錄
文宗	1		13 (12)					2	16 (15)	文宗實錄
世祖12年	1	1	2	2	3	2	2	2	15	世祖實錄
成宗	1	1	1	1	3	2	2	1	12	經國大典
燕山君 12	1	1	1	1	1	1	1	2	9	燕山君日記
中宗 25	1	1	1	1	3	2	2	1	12	新增東國輿地勝覽
仁祖 23	1	1	1	1	1	2	2	1	10	增補文獻備考
英祖 20	1	1	1	1	1	2	2	2	11	續大典
正祖 9	1	1	1	1	1	2	2	2	11	大典通編
高宗 2	1	1	1	1	1	2	2	1	10	大典會通
高宗 3	1	1	1	1	3	2	2	2	13	六典條例

<表 1>을 보면 직원의 수가 큰 차이는 없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약간씩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변화는 文宗, 世祖때 약간 변동이 있었고, 成宗 16년(1485) 당시 判官, 主簿, 參奉이 각 1명씩 감원되어 총 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燕山君 12년(1506)에 와서는 直長 2명과 奉事, 副奉事를 1명씩 감원하고 參奉 1명을 더 두어 총 9명으로 成宗때보다 3명이 줄었다. 中宗때 가서는 直長 2명과 參奉 1명을 증원하여 12명으로, 仁祖 23년에 와서는 다시 直長 2명을 감원

12) 「增補文獻備考」 職官考.  
 13) 「續大典」 卷一 吏典 京官職 內醫院條.  
 14) 「增補文獻備考」 職官考.

하여 10명으로 하였다. 英祖 이후부터는 參奉 1명이 증원되어 총 1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英祖朝에 直長의 수가 1명인 것이<sup>15)</sup> 燕山君 이후 중종 때 直長의 수가 3명으로 증원되지만 인조 이후부터는 1명으로 감원되었다. 그 후 다시 正祖 이후에 直長의 수는 3명으로 증원되나<sup>16)</sup> 高宗 2년(1865)에 直長 1명과 參奉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sup>17)</sup> 고종 3년에는 직장 2명을 증원하여 3명으로 총 13명이었다. 이들을 총 지휘 감독하는 직책으로 영의정을 겸한 도제조, 그 아래에 승지가 겸직하는 제조와 부제조 등 당상관과 당하관 12명을 두고 왕실의 의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시대의 변천으로 인하여 내의원은 고종 22년(1885)에 典醫司, 고종 32년(1895)에 太醫院으로 변경되었다.

## 2.2 內醫院의 資格 및 役割

내의원 의원의 자격은 무엇보다 의술에 뛰어난 자라야 선발 대상이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이 실시되지 못하여 선발하기도 어려웠다. 세종 때 와서 내의원의 직제가 바뀌기는 했지만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단종 때 慶昌府尹 李先齊가 당시 의원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전의감, 혜민국, 제생원에 제조가 있으나 항상 출근하여 의서를 강론하지도 않는다는 점과 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의생들이 스스로 자습하고 있고, 의학에 능통한 자가 없는 까닭에 문진과 진맥도 하지 못하면서 소견만 가지고 처방을 하여 병자만 더욱 위태롭게 했다는 점, 문중 대왕의 병도 내의원에 양의가 없어 치료하지 못했다는 점 등등의 조건을 들어 다음과 같이 의원들의 의학교육대책을 제시하였다.

“내의원의 의원과 三醫司의 의원들 모두 禮曹에서 여러 의서를 가지고 시험하여 성적이 상위권에 든 자 10여명을 선발해서 典醫監에 소속시켜 御藥만을

15) 『續大典』. 卷1.張27a. 吏典 京官職 內醫院條.

16) 『大典通編』. 卷1. 吏典 京官職 內醫院條.

17)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관장하도록 하고 輪番으로 내의원에 入直시키도록 한다. (중략) 전의감에는 제조가 출근하여 항상 독서하는 日課를 살피고, 젊고 총명한 선비 몇 사람과 의서에 밝은 노련한 의원을 가려 뽑아 提學와 別坐로 삼고 모두 겸직시켜서 여러 의서를 敎授하게 하되, 매달 日講하기를 성균관과 四部學堂의 예와 같게 한다. 나머지 중위권과 하위권의 醫生들은 惠民局과 濟生院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提調와 別坐가 항상 출사하여 강론하도록 한다.”<sup>18)</sup>

본 건의를 보면 당시부터 의원들의 의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의학교육이 실현되도록 시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조 9년에는 예조에서 의서습독관과 의녀권장조건을 마련하면서 “내의원은 典醫監提調와 예조 堂上이 成均館의 月講하는 예에 의하여 매월 典醫監에 앉아서 읽은 모든 의서를 講하여, 通하고 不通한 것을 기록하였다가 遞兒를 受職할 때, 그 점수를 상고해서 사용하고, 三醫司에 闕員이 있으면 遞兒를 不計하여 보충 임명하되, 그 중에서 탁월한 자는 顯官을 제수하고, 不通한 것이 가장 많고 게으름이 뚜렷한 자는 告身을 거두어 醫司使令으로 정하였다가 그 점수를 상고하여 本任에 還許하소서.”<sup>19)</sup>라는 것을 보면 의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내의원에 근무하는 의원은 御醫와 內醫로 구분하였다. 御醫는 堂上醫官을, 內醫는 堂下醫官을 칭하였다. 어의는 내의 중에서 의술에 정통한 자를 특차하였으며, 議藥同參이나 鍼醫는 당상관·당하관을 구분하지 않고 ‘어의’라 하였다. 이들이 내의원에 소속되려면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다. 성종 3년에는 습독관 중에 여러 의서를 읽은 뒤 예조에서 시험을 하여 실력이 우수한 자를 내의원에 겸직하도록 했으며,<sup>20)</sup> 또 한 길은 醫科의 初試, 覆試를 모두 합격하고 取才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자라야 했다.<sup>21)</sup> 또 內醫院 醫員이 되더라도 의원들의 의술향상을

18) 『朝鮮王朝實錄』 卷4. 端宗 卽位年 12月 25日(癸丑). 6집 559면.

19) 『朝鮮王朝實錄』 卷30. 世祖 9年 5月 22日(庚戌). 7집 575면.

20) 『朝鮮王朝實錄』 卷16. 成宗 3年 3月 14日(庚戌). 8집 644면.

21) 成宗 19년에 개정된 經國大典 醫科의 初覆試의 과목을 보면, “纂圖脈, 銅人經(誦), 直指方, 得效方, 婦人大全, 瘡疹集, 胎產集要, 救急方, 和劑方, 本草, 經國大典(臨文)이며, 取才 시 과목은 醫學과 針灸學으로 구분되는데 醫學분야는 纂圖脈, 銅人經(誦하되 50세 이상이면 背講함), 瘡疹集, 直指方, 救急方, 婦人大全, 得效方, 胎產集要, 和劑方, 本草, 資生經, 十四經發揮(臨文)이며, 針灸學 분야는 纂圖脈, 和劑指南, 銅人經등은 誦하고, 直指脈, 針

위해서 醫書習讀廳을 설치하여 계속 의서를 습득하게 하고, 50세 이하까지는 四孟月마다 提調가 3종의 책을 선정하여 시험하고 그 성적을 평가한 뒤 吏曹에 이첩하여 승진 또는 강등하기도 했다. 연산군 때는 외부의 의원 중에 의술이 능통한 자를 내의원 의원으로 발탁한다는 이유로 성준이 습독관을 폐지하자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다.<sup>22)</sup> 이렇게 해서 숙련된 의원들은 임금의 의약뿐만 아니라 王室의 상황에 따라서 侍藥廳, 產室廳, 護產廳, 醫藥廳 등을 부설로 설치하여 왕족의 건강을 위해 많은 의술활동을 펼쳐왔으며, 약재관리, 약재채취방법홍보, 감별, 조제감사, 약재무역, 양조, 의서편찬, 간행, 의학자료실 등을 담당(성종 9년: 내의원: 내용하는 약재 담당, 전의감: 의약제조, 헤민서를 제생서라 하여: 향약공급 담당)하였으며, 기타 고위관직에 있는 신하들의 질병을 치료한 경우도 있다.

### 3. 內醫院의 醫書編刊

조선시대 의서편찬과 간행은 주로 내의원에서 담당하여 결정되었다. 의서편찬은 의관들이 하고 간행은 교서관이나 주자소에서 전담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에는 간행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자 내의원 단독으로 의서관행까지 담당하였다. 그 시기가 선조 말부터 광해군 때 까지 집중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기로 나누어 내의원 의관들의 의서편찬과 내의원의 의서관행에 있어서 상술하고자 한다.

---

經指南, 子午流注, 玉龍歌, 資生經, 外科精要, 十四經發揮, 針經摘英集 등은 臨文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英祖 20년의 續大典에서는 纂圖脈, 銅人經(背誦), 直指方, 本草, 經國大典은 臨文하고 素問, 醫學正傳, 東垣十書는 모두 新增인데 臨文하고 나머지 의서는 폐지하고, 取才시 과목은 醫學분야는 纂圖脈, 銅人經(誦), 直指方, 本草, 素問, 東垣十書, 醫學正傳(以上은 新增나머지 의서는 폐지하고, 針灸學분야는 醫學과 같이 취재하는데 모든 의서는 폐지하고, 素問을 背誦하는 자는 별도로 급료를 배로 준다고 되어 있다. 正祖 9년의 大典通編과 高宗 2年 大典會通에는 經國大典에 나타난 과목과 동일하다.

22) 『朝鮮王朝實錄』 卷42 燕山君 8年 1月 28日(辛丑). 13집 468면.

### 3.1 前期의 醫書編刊

조선조 의서편간은 대부분 내약방이나 내의원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 졌다. 정종 1년(1399)에 江原營에서 간행된 「鄉藥濟生集成方」, 태종 17년 畿興縣(1417)과 세종 9년(1427)에 충청도에서 간행된 「鄉藥救急方」, 세종 7년(1421) 춘천부에서 간행된 「世醫得效方」, 세종 12년(1430)에 간행된 「產書」, 세종 13년(1431)의 「鄉藥採取月令」, 「直指方」, 「傷寒類書」, 「醫方集成」, 「補註銅人經」, 세종 15년(1433) 「鄉藥集成方」, 세종 16년(1434), 「胎產要錄」, 세종 20년(1438) 「永類鈴方」, 「新註無冤錄」, 세종 21년(1439) 「檢屍狀式」 등은 내약방 의원들의 주축으로 편찬, 수입되어 각 지방이나 주자소 등에서 간행되었다. 내의원의 의서 편간은 내약방의 명칭과 제도가 변경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내의원으로 제도가 변경된 후 가장 먼저 편찬, 간행된 의서는 「鍼灸擇日編集」이다. 이 의서는 세종 29년(1447)에 內醫院 醫官 全循義와 司直 金義孫이 鍼灸時日의吉凶을 막기 위해 편간되었다.<sup>23)</sup> 단종 때는 和劑方, 「極急遺方」, 聖惠方, 「得效方」, 「衍義本草」, 「纂圖脉訣」 등이 간행되거나 도입되었고, 세조 때는 「銅人經」, 「加減十三方」, 「服藥須知」, 「傷寒指掌圖」, 「黃帝內經素問」 등이 간행되었으며, 성종 19년(1488) 11월에는 「東垣拾書」를 同知 中樞府事 成建이 명에서 도입하여 간행한 바 있다. 그가 성종에게 바치면서 이르기를

“內醫院에 이 책이 있으나 完帙이 아니므로 감히 이를 헌납 합니다 하니, 성종이 이르길, 옛날에 ‘무릇 사람의 자식이라면 醫方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늘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집권하는 사이에 힘이 미치지 못했는데 이 책을 보니 내 마음이 흐뭇하여 馬裝 一部를 내린다. 이어서 그 책을 內醫院에 내리면 서 이르기를, 帙을 살펴 보고해라. 帙이 구비되면 마땅히 刊行하겠다.”<sup>24)</sup>

23) 「世宗實錄」 世宗 二十九年 十二月 六日.

24) 成宗實錄」 卷221. 成宗 19年 11月 辛丑 “同知中樞府事成建嘗赴京購求醫方, 得東垣拾書來獻, 仍啓曰 臣多疾病, 入朝購得此書, 今聞內醫院亦有此方, 不帙故敢獻, 傳曰, 古云, 凡爲人子者, 要解醫方, 子每念, 斯語, 而萬機之間, 力未能及, 近因大妃違豫, 方欲涉獵, 而鄉進良方予心乃嘉, 其賜馬裝一部, 仍下其書于內醫院曰, 考帙以啓, 具帙則當使刊行.”

본 기록으로 보아 이 책이 內醫院에 있었지만 帙이 맞지 않아서 내의원에서 다시 帙을 갖추어 刊行하였음이 확실하다. 이 책은 元 李東垣의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蘭室秘藏」, 宋의 崔嘉彥의 「脈訣」, 朱丹溪의 「局方發揮」, 「格致餘論」, 元 王履의 「溯洄集」, 元 王好古의 「湯液本草」, 「此事難知」, 齊德之의 「外科精義」 등으로 구성된 책이다. 1774년본 續大典<sup>25)</sup>과 1865년본 「大典會通」<sup>26)</sup>을 보면 本書가 醫科取才 과목에 들어있어 100여년 이상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宗朝에 있어서도 내의원에서 의서관집청을 설치하여 의서관찬은 계속되었다. 성종 5년(1474)에는 내의원에게 향약의 건조하는 방법을 「本草」에서 발취하여 기록한 뒤 각도에 보내도록 하였으며,<sup>27)</sup> 성종 9년(1478)에는 鄉藥集成方」을 인쇄하여 각 고을에 배포하되 향약집성방에 本草를 추가하여 간행토록 하였으며,<sup>28)</sup> 19년(1488)에는 본 의서 중 꼭 필요한 부분만 번역을 추가하여 활자로 간행토록 하였다.<sup>29)</sup> 그리고 成宗 20年(1489)에 “內醫院 提調 領敦寧 尹壕 등이 「新撰救急簡易方」 9卷<sup>30)</sup>을 올리니 諸道 監司에게 간행케 하여 각 고을에 배포하도

25) 「續大典」 卷3 禮典諸科.

26) 「大典會通」 卷3 禮典諸科.

27) 「成宗實錄」 卷41. 成宗 5年 4月 丁巳(3日) 冊9. 99.

28) 「成宗實錄」 卷98. 成宗 9年 11月 壬午(25日) 冊9. 668.

29) 「成宗實錄」 卷220. 成宗 19年 9月 庚辰(20日) 冊11. 374.

30) 本書는 당시 임금에게 진상할 때 「成宗實錄」에는 9卷으로 되어 있는데 本書의 序文에는 8卷 127門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 책을 新撰하여 尹壕등이 처음으로 진상할 때는 9卷이었지만 王命을 받아 刊印할때 교정을 加하여 8卷으로 한 듯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임금의 취지가 백성들이 병을 쉽게 治療할 수 있도록 모든 醫書들을 參考로하여 要點을 整理해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目的이었음을 序文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本書를 진상할 때는 印出한 후 同 20年 9月 21日에 內醫院에서 다시 임금께 진상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진상할 때는 著者가 저술하여 未刊本으로 9卷을 올린 것 이고, 그 후 王命을 받아 內醫院에서 교감을 加하여 8卷으로 刊印한 뒤 재차 同年 9月 21日에 진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현재 原本은 없으며 覆刻本이 있는데, 이것도 完帙이 아니다. 奎藏閣에 卷1, 東國大學圖書館에 卷3, 一山文庫에 誠庵文庫에 卷6, 故 金完燮 所藏인 卷7, 金信根의 「韓醫藥書攷」에 의하면 卷2는 安東市에 거주하는 金永倬씨가 所藏하고 있다고 한다. 奎藏閣에 所藏된 本書는 1卷 1冊(119張)으로 木版本이며, 책의 크기는 29.8×17cm, 四周單邊으로 半葉匡郭이 20×14.5cm이다. 有界로 8行 17字이고 註雙行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版心題로는 簡易方으로 기록되어 있고 許琮이 弘治 2年(1489)에 쓴 序文이 있다. 誠庵文庫本은 1卷 1冊 으로 卷6만 所藏되어 있다. 乙亥字覆刻

록 하였다”<sup>31)</sup>는 기록과 同年 9月 21日에는 內醫院에서 이 책을 올리니 提調인 尹壕·任元濬·許琮에게 각각 馬裝一, 鑪口一, 囊衣一, 朴安性·權健 의원에게는 堂上, 宋欽·車得駿에게는 馬裝一, 囊衣一을 良廳尹師夏 이하에게는 鹿皮 한 장을 하사하고<sup>32)</sup> 諸道 관찰사에게 의서를 주면서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라고 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內醫院에서 諸道에 보낼 정도의 部數만 印出하여 각 고을에 頒賜하면 그 고을에서 刊印하여 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同 24年(1493) 2月에는 內醫院 主簿 許珪가 「醫方要錄」 3卷을 편찬하여 올리니 보기에 아주 편리하므로 內醫院에서 교정하여 刊行하도록 하였다.<sup>33)</sup> 이듬해인 成宗 25年(1494) 3月에는 王이 「加減十三方」을 內醫院에서 刊板하여 30餘本을 의원들에게 하사하였다.<sup>34)</sup> 그리고 이해에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掌令 閔頤의 건의에 따라 醫書撰集廳을 해체하여 한동안 의서관행이 중단되기도 하였다.<sup>35)</sup> 그 후 燕山君 3年(1497)에 神仙太乙紫金丹方 이 간행되었으며, 燕山君 4년에는 內醫院 都提調 尹弼商, 提調 洪貴達, 副提調 鄭眉壽, 內醫 金興壽 등이 救急易解方 을 撰集 諺解하여 이듬해인 燕山君 5年(1499) 3月에 校書館에서 刊行하였다.<sup>36)</sup>

中宗때 와서는 내의원의 의서편간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의원 산하에 성종조와 같이 醫書撰集廳을 設置하여 「諺解辟瘟方」, 「諺解瘡疹方」, 「簡易辟瘟

---

板인 이 책은 크기가 30.2×18.7cm이고, 四周單邊으로 半郭이 20.9 ×14.9cm이다. 有界로 8行 17字이고 註雙行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고 版心題로는 簡易方으로 되어있다. 본서는 중앙에서의 출판 뿐만아니라 地方에서도 刻板하여 印出하였음이 「攷事撮要」 八道 冊板目錄을 보아 알 수 있다.

- 31) 成宗實錄 成宗 二十年己酉五月三十日 “內醫院提調領敦寧尹壕等進 新撰救急簡易方 九卷, 命諸道監司開刊印行.”
- 32) 上揭書 成宗二十年 九月二十一日 “內醫院進新撰救急簡易方賜提調尹壕, 任元濬, 許琮各馬裝一部, 鑪口一, 囊衣一, 朴安性, 權健, 醫員堂上宋欽, 車得駿各馬裝一部, 囊衣一, 良=尹師夏以下鹿皮一張.”
- 33) 成宗實錄 卷二百七十四 成宗 二十四年癸丑二月十五日(庚戌) “內醫院主簿許珪撰進 醫方要錄三卷 傳曰甚便於 觀覽令內醫院校正印之.”
- 34) 「韓國醫學史」, 金斗鍾. 探求堂, 1966. 255.
- 35) 「成宗實錄」卷289 成宗 25年 甲寅 4月.
- 36) 救急易解方」序文“(前略)內醫院都提調臣尹弼商提調臣貴達副提調臣鄭眉壽及內醫臣金興壽撮諸方中病之最急藥之易得者編成別方彙以諺字以進既乃賜名曰救急易解方(後略)跋文 “弘治十一年秋, 命內醫院撰易解方且譯以諺字令校書館印之梓廣布(後略).”

方], 「分門瘟疫易解方」 등이 편찬되었다. 「諺解辟瘟方」과 「諺解瘡疹方」은 中宗 13年(1518) 4월에 同知中樞府事 金安國이 諺解한 「辟瘟方」과 「瘡疹方」을 農書, 蠶書, 呂氏鄉約 등의 諺譯本과 함께 八道에 印頒하기를 啓請하므로 撰集廳을 新設하여 刊行한 책이다.<sup>37)</sup> 中宗實錄 中宗 13年 4月 1日條의 기록에 의하면,

“農書와 蠶書는 衣食의 大政이고(中略) 「辟瘟方」은 瘟疫이 사람에게 전염하여 사상자가 많으므로 世宗朝에 이미 俚語로 번역하여 中外에 印頒하였으나 지금은 드문 까닭으로 王이 諺解하여 刊行하였다. 「瘡疹方」도 일찍이 번역 개간하였으나 지방에는 보내지 않아 요절한 자가 많았으므로 臣이 경상도에 있을 때 本道에서 刊行하였다. 成宗朝의 「救急簡易方」의 例에 의하여 많이 인출하여 널리 보내고자한다.”<sup>38)</sup>

하였는데 여기서 「辟瘟方」이나 「瘡疹方」은 어느 때 編撰하였는지 확실치는 않다. 다만 世宗朝에 俚語로 번역한 걸로 보면 적어도 世宗朝에나 그 以前에 編撰 刊印된 것으로 보인다. 「簡易辟瘟方」은 中宗 20年(1525) 正月에 王命으로 내의원 의원인 金順蒙, 朴世舉, 劉永貞 등이 編撰한 책으로 당시 평안도의 전염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刊行되었으며, 「分門瘟疫易解方」은 中宗 37年(1542) 5월에 金安國이 내의원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撰한 醫書이다. 本書의 序에 의하면,

“중종 37年 5月 下旬에 瘟疫이 전국으로 돌아 멸문하는 집이 속출하였기에 聖上이 이를 염려하여 의원을 각도에 파견하고 救療策을 써서 치료에 힘썼다. 그러나 의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비하기 위해서 聖上이 金安國에게 명하여 「辟瘟方」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에 金安國은 王命을 받아 醫司行護軍 朴世舉, 行司猛, 洪沈을 시켜 內醫院正 文世璉, 直長 柳之蕃, 典醫 前僉正 李侗, 前直長 鄭樞, 惠民署 前直長 洪世河 등과 함께 여러 의서 중에서 施術하기 쉬운 처방과 갖추기 쉬운 藥을 取하여 舊抄 60餘方에 다시 40餘方을 첨가하고 鎭梁, 不相傳染, 服藥, 勞服 등 四門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藥名과 採取法을 더한 다음 모두 諺文으로 번역하여 어리석은 부녀자일지라도 해득할 수 있도록

37) 中宗實錄 卷三十二 中宗 十三年戊寅四月 “金安國啓(略)設撰集廳印出文籍此等書使之更加 讐校印頒八道(後略).”

38) 上揭書 “金安國啓 ...農書 蠶書乃衣食之大政(中略)世宗朝重惜人命翻以俚語印頒中外 今則稀罕故臣亦加諺解以刊至如 瘡疹方曾已翻譯開刊而不頒布于中外人之 天札者多以此疾故臣往 慶尙道時賚去刊印於本道已頒布矣,願依 成宗朝廣頒救急簡易方例多印廣布.”

하여 올리니 聖上께서 이를 「分門瘟疫易解方」이라는 서명을 내렸다.”<sup>39)</sup>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諺解된 醫書가 刊行되어 中宗 朝에 비로소 일반 백성들이 쉽게 病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명종조에는 「黃疸瘡疾治療方」과 「救荒撮要」를 편간하였으며, 明宗 14年(1559)에는 「救急良方」이 刊行되었다. 卷末에 安瑋의 跋文을 보면,

“이 「救急良方」은 左相이 內醫院 諸公으로 하여금 諸方을 請求케하고 撰出케 한 것이다. 내가 湖南觀察使가 되어 疾病이 생겨 良醫를 얻지 못한 것을 염려한다. 이로 인하여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상고하고 처방으로 藥을 결정짓는다. 이 冊은 지극히 간단하고 效力이 신비할 정도인데 감히 사사로이 秘藏치 않고 아울러 「治腫方」의 뒤에 附錄으로 하여 고을 백성들에게 提供하고자 한다.”<sup>40)</sup>라고 했는데, 이는 左相의 권유로 內醫院에서 撰한 것을 당시 湖南觀察使로 갔던 安瑋가 跋文을 作成하여 「治腫方」의 뒤에 붙여 木板本으로 刊行한 의서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현재 日本圖書寮에 所藏되어 있다. 이상으로 전기에 내의원 의 주축으로 편간된 의서들은 <表 2>와 같다.

39) “我聖上之三十七年,適值歲氣流運,癘疫熾發遍于諸道,聖上惻念,命分遣醫員,考方劑藥救療,猶慮窮村僻鄉,醫或未及遍歷,民之罹病者未解治救之方,多致橫札之患,舊存辟瘟兩方抄錄,尙漏禳辟療治,又復混雜,且無藥名採法,蒙患之民尤所難解,雖有其方,不能濟急,乃命因舊方,加抄簡要易解之方,分爲門,類并錄諸藥鄉名採取之法,彙成新方,刊刻中外,務令廣布,俾民庶家有,而人解,病之未發,預辟之已發,旋救之期,無札瘥,以納仁壽之域臣安國實承睿旨,而摠之,轉下醫司行護軍臣朴世舉.行司猛臣洪沉率.內醫院正臣文世璉.直長臣柳之蕃.典醫監前僉正臣李倜.前直長臣鄭樞.惠民署前直長臣洪世河等掌,而衰集旁搜諸書方,取而施藥取而備,於舊抄六十餘方,添入四十餘方,分爲四門,首鎮禳,次不相傳染,次服藥,次勞復,繼之以藥名採法,皆翻解諺文,於是救癘之方秩然分曉,雖愚夫愚婦可盡解識而易用,遂繕寫以進,賜名曰分門瘟疫易解方.”  
40) 「救急良方」跋文“右救急良方,乃今左相,俾內院諸公,講求諸方,而撰出者也,以余出按湖南,慮其遇疾,而不得良醫也,因證考方命藥,至簡而要至效,而神若和扁之在傍矣,不敢私秘,並附于治腫方之左,欲與人共之時已未孟春竹溪安瑋跋.”

<表 2> 前期에 編刊된 醫書

書名	著者	刊寫事項	備考
鄉藥濟生集成方	金希善	江原營, 定宗 1년(1399).	
鄉藥救急方	高麗朝 醫員	義興縣, 太宗 17년(1417)	宮內省圖書寮 所藏
世醫得效方		春川府, 世宗 7년(1421).	
鄉藥救急方		忠青道, 世宗 9년(1427)	
産書		世宗 12년(1430); 中宗 38년(1543)	世祖 때 醫書習讀官 教材, 取才科目
鄉藥採取月令		世宗 13년(1431)	
直指方	(宋)楊士瀛	鑄字所, 世宗 13년(1431); 中宗 38년(1543)	
傷寒類書	(宋)楊士瀛	鑄字所, 世宗 13년(1431)	
醫方集成	(元)孫允賢	鑄字所, 世宗 13년(1431)	
補註銅人經	(宋)王唯一	慶尙道, 世宗 13년(1431)	
鄉藥集成方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全羅·江原道, 世宗 15년(1433); 世祖 2년(1456); 成宗 8년(1478); 訓練都監, 仁祖 11년(1633)	성종 25년 본초부분언 해
至正條格	(元)	세종 16년	
胎産要錄	盧重禮	鑄字所, 世宗 16년(1434); 中宗 38년(1543)	
永類鈴方	(元)李仲南	晋州, 世宗 20년(1438); 世祖 2년(1456)	단종 3년 사절에게 명에서 구입케 함
新註無冤錄	(元)	世宗 20年: 原州牧, 世宗 22年(1440); 世宗 29年(1447)	
檢屍狀式		世宗 21년	
三元參贊延壽書	(元)李鵬飛	全州府, 世宗 27年(1445)	일본 내각문고소장
鍼灸擇日編集		世宗 29년(1447)	
撮要新書	朴興生	世宗?	
食療纂要	全循義	世宗?: 成宗 18년(1487)	海東文獻總錄 參考
和劑(局)方	(元)朱震亨	咸吉道, 端宗 2년; 世祖 2년(1456)	
拯急遺方(極急?)	(明)葉平賢	端宗 2년(1454)	
聖惠方	(宋)王懷隱	端宗 3년	사절에게 명에서 구입케 함
得效方	(元)危亦林	端宗 3년; 世祖 2년(1456)	단종 3년 사절에게 명에서 구입케 함
衍義本草	(宋)寇宗奭	端宗 3년; 世祖 2년(1456)	단종 3년 사절에게 명에서 구입케 함
纂圖脉訣	五代 高陽生	端宗 3년	단종 3년 사절에게 명에서 구입케 함
銅人經		世祖 2년(1456)	

加減十三方	(明) 徐文中	世祖 2년(1456): 成宗 25년(1494)	각 고을에서 간행하여 습독청에 보냄
服藥須知	(宋) 溫大明	世祖 2년(1456)	
傷寒指掌圖		世祖 2년(1456)	
黃帝素問	(周) 軒轅黃帝	世祖 6년(1460)	을해자본
張子和方		世祖 8년(1462)	습독관 교제
醫藥論註解		世祖 9년(1463)	
小兒藥證直訣		世祖 10년(1464)	의원취제 과목
外科精要	(宋) 陳自明	世祖 10년(1464)	의원취제 과목
婦人大全	(宋) 陳自明	世祖 10년(1464)	의원취제 과목
大全本草		世祖 10년(1464)	의원취제 과목
脉經	(西晉) 王叔和	世祖 10년(1464)	의원취제 과목
救急方註解		世祖 12년(1466)	
資生經	(明) 王叔權	成宗 2년	의원취제 과목
十四經發揮		成宗 4년	의원취제 과목
神應經	(明) 劉瑾	成宗 5년(1474): 內醫院, 仁祖 21년 (1643) 重刊	
醫方類聚 266卷	全循義, 崔閔亨	成宗 8년(1477)	
周府袖珍方 4卷4冊	(明) 徐用誠	成宗 13년(1482)	重刊(朝鮮醫書誌/三 木榮)
掌(棠)陰比事		成宗 14년 8월	각 고을에서 간행
救急易方		平壤, 成宗 15년(1484)	日本宮內省圖書寮
東垣十書	(元) 李東垣	成宗 19년(1488)	
新撰救急簡易方		成宗 20년(1489)	
醫方要錄 3卷	許玘	內醫院, 成宗 24년(1493)	
安驥集		成宗 25년(1494)	
水牛經		成宗 25년(1494)	
神仙太乙紫金丹方		燕山君 3년(1497)	
救急易解方		燕山君 4년(1498): 燕山君 5년(1499): 昆陽郡, 中宗 18년(1523)	연산군 5년 註解
妊娠撮要方		燕山君 9년(1503)	
診解辟瘟方		中宗 13년(1518)	
診解瘡疹方		中宗 13년(1518)	
纂圖		中宗 13년(1518)	
靈樞	軒轅黃帝	中宗 13년(1518)	
難經	扁鵲	中宗 13년(1518)	
續辟瘟方診解		中宗 20년(1525)	
簡易辟瘟方診解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	中宗 20년(1525)	속벽온방과 동일본
村家救急方	金正國	南原, 中宗 33년(1538): 宣祖 5년(1572)	

牛馬羊猪染疫治療方		校書館, 中宗 36년(1541)	柳應昌 序
分門瘟疫易解方	金安國	中宗 37년(1542)	
銅人經	(宋) 王維德	中宗 38년(1543)	
脈訣理玄秘要		洪州牧, 明宗 2년(1547)	
臞仙活人心射		慶州牧, 明宗 5년(1550)	
黃疸瘡疾治療方		明宗 5년(1550)	
救荒撮要		明宗 9년(1554)	
救急良方	內醫院	明宗 14년(1559)	安瑋의 跋文있음
醫說	(宋) 張杲	明宗 15년(1560)	
醫林撮要	鄭敬先, 楊禮壽	宣祖初期; 肅宗 1년(1676)	
簡易辟瘟方	朴世學, 金順夢, 劉永貞 등	宣祖 11년(1578)	보물제1249호(가천박물관)
新刊補註銅人脈穴鍼灸圖經		宣祖 11년(1578); 內醫院, 孝宗 5년(1654)重刊	

결과적으로 전기의 내의원에서는 직접적인 의서 간행보다는 의서편찬, 수입 측면에 비중을 두고 많은 의서들을 보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된 의서를 충당하고 백성들의 질병구료를 위해 내의원이 독자적으로 의서관집청을 설치하여 의서를 편찬하거나 간행한 상황을 밝혀보고자 한다.

### 3.2 後期の 醫書編刊

임진왜란 전에는 내의원이 주축으로 의서를 편찬하기는 했으나 간행처는 아니었다. 중앙에서는 주자소나 교서관 등에서 간행하거나 각 지방에서 분담하여 간행하였다. 그러나 임란으로 인해 내의원에 소장된 의서가 상당수 소실되자 의생이나 의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 의서편찬이나 그 간행이었다. 결국 內醫院은 독자적으로 醫書撰集廳을 설치하여 의서편찬에 열중하였으며, 간행을 직접 관리·감독하여 여러 의서를 轉寫하거나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당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여서 타 기관의 협조가 절실하기도 했다. 즉 宣祖實錄, 宣祖 39年(1606) 5月 14日條를 보면,

“內醫院에서 탐하기를, 전쟁 이후로 內醫院 의서가 없어져서 약을 의논할 때에 참고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배우는 학생들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없어진 모든 책을 수습하여 겨우 1, 2책을 얻었습니다. 活字로써 약간의 醫書를 印出하려고 종이는 本院에서 구비하였으나 인출하는데 醫役의 품삯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혹 校書館 장인 10명과 糧料를 얻는다면 의서를 印出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관서로써 모든 都監에게 의뢰하여 醫人들의 朔料를 주어 즉시 印出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41)</sup>

이는 당시 전쟁으로 없어진 의서 몇 책을 수습하여 인쇄하려는데 경제적인 곤란이 여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刊行된 醫書가 어떤 의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 이듬해인 宣祖 40年(1607) 7월에 「食物本草」와 「諺解救急方」 2卷이 刊寫되었다. 「食物本草」는 과거에 옥산서원에 보존되어 전해왔으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sup>42)</sup> 「諺解救急方」은 宣祖의 교지를 받들어 許浚(1546, 명종 1-1615, 광해군 7년)이 諺解하여 內醫院에서 轉寫하였으며, 현재 한독의약박물관과 일산문고에 보존되어 있다.<sup>43)</sup> 이듬해인 선조 41年(1608)에도 역시 許浚의 諺解로 「諺解痘瘡集要」와 「諺解胎產集要」가 刊行되었다. 「諺解痘瘡集要」는 선조 34年(1601)에 허준이 편찬한 의서로 2000년 강순애 교수에 의해 내의원자본이 발견되어 발표된 바 있다.<sup>44)</sup> 현재 내의원자로는 가천박물관에, 목판본으로는 규장각, 장서각,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한독의약박물관, 호림박물관 등에 소장되었으며, 개인소장으로는 山氣文庫, 誠庵文庫 등에 소장되어 있다.<sup>45)</sup> 「諺解胎產集要」는

41) 「宣祖實錄」 宣祖 39年(1606) 5月 14日.

42) 食物本草. 明대에 盧和가 撰한 의서로 책의 크기는 20.5×14.8cm, 글자의 크기는 1×1.2cm 이다. 광곽은 四周雙邊이며, 12行 20 字로 어미는 上下三葉花紋魚尾이다(1993년까지 보존되었던 의서가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다).

43) 諺解救急方 / 許浚. 원본은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되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음. 현전하는 전사본은 四周雙邊, 半葉匡郭: 13.8×18.2cm, 有界, 10行16字, 無魚尾. 17.58×23cm. 권말: 萬曆 35年(1607) 6月 日 內醫院開刊傳書 / 都提調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臣 柳永慶 / 提調資憲大夫吏曹判書臣 崔天健 / 副提調嘉義大夫行承政院都承旨臣 權愔 / 監校官通訓大夫行內醫院主簿臣李絡 / 通訓大夫內醫院直長臣 申得一.

44)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 서지학연구 제19집(2000). 2권 2책, 내의원목활자, 四周雙邊, 半廓 25.0×17.4cm. 有界, 半葉11行20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전체길이 32.5×21.5cm(가천박물관).

45) 諺解痘瘡集要. 규장각 一囊古615.135-h4du-v.1-2 木版本 2冊: 四周單邊, 半葉匡郭: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독의약박물관 등에 전하고 있으며, 한독의약박물관본은 1991년 보물 제1088호로 지정되었다.<sup>46)</sup> 국립중앙도서관본은 표지이면에 “萬曆 36年內賜行大司成金功諺解胎產集要/命除謝/恩/右承旨臣朴(수결)”이라는 내사가기 있으며, 印記로는 「宣賜之記」라 날인되어 있으며, 권말의 간기에는 “萬曆三十六年 正月日 內醫院開刊 / 監校官 通訓大夫 內醫院直長”으로 되어 있고 감교관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같은 해에 楊禮壽의 撰으로 알려진 「醫林撮要 의 속집인 「醫林撮要續集 권1과 권2가 목활자로 刊行되었는데 현재 유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에 권1은 유실되고 권2만 소장되어 있다.<sup>47)</sup> 그 후 光海君에 이르러서는 宣祖때의 亂으로 없어진 醫書를 復刊하게 되고 許浚의 「東醫寶鑑」도 완성되는 등 內醫院 醫書刊行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는 醫書가 과거의 原始的인 면을 탈피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醫書 監役官과 監印官을 두었으며, 이들에게는 교정이 잘 되었을 경우 賞을 주고 착오가 많을 경우는 심한 벌을 가하기도 하였다. 즉, 光海君 卽位年(1608) 10月條에,

“醫書印出監役官 李彳各 은 東班敍用하고, 申得一, 李希憲은 本衙門 正職을 除授케 하다.”<sup>48)</sup>

라는 것과 光海君 元年(1609) 2月條에,

23×17.3cm, 有界, 11行20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32.6×20.6cm. 刊記: 萬曆三十六年正月日 內醫院開刊/ 監校官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 李希憲 / 通訓大夫行內醫院奉事 李彳各 규장각 가람고귀615.135H41e v.2. 木版本. 1冊(零本): 四周單邊, 半葉匡郭: 22.7×17cm, 有界, 11行20字, 版心: 上下內向花紋魚尾; 33×32.2cm).

46) 諺解胎產集要. 奎-235한-68-88, 內醫院木活字, 1冊(81張): 四周雙邊, 半葉匡郭: 24.7×17.2cm, 有界, 11行20字, 版心: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6.8×23.3cm. 卷末: 監校官…李希憲, 李彳各 .刊記: 萬曆三十六年(1608)正月日 內醫院開刊.

47) 醫林撮要續集」卷二: 1책(75장): 四周雙邊, 半郭 24.9 x 17.0cm. 有界, 11行 20字 註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 31.7×21.1cm . 卷末에 다음과 같은 刊記와 監校官의 官職이 기재되어 있다. “萬曆 三十六年九月 日內醫院開刊/監校官通訓大行內醫院判官臣 李彳各 /監校官通訓大行內醫院主簿臣 李希憲” 本書는 二卷 二冊인데 現在 國立中央圖書館(한古朝 68-104)에 第二冊 所藏되어 있다.

48)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卽位年 10月(太白山本)“醫書印出監役官 李 李彳各 東班敍用 申得一, 李希憲 本衙門正職除授.”

“先朝가 醫書散失을 근심하여 局을 設置하고 印出케 하였는데 監印官의 태만으로 校讐의 착오가 많을 뿐만 아니라 漏落한 것이 또한 많다. 監印官을 拿鞠하기를 請하고 醫書印出을 다시 醫官으로 하여금 일일이 校正케 하다.”<sup>49)</sup>

라는 記錄을 볼때 당시 醫書刊行 監役官은 李彳各, 申得一, 李希憲 등을 두어 醫書가 人間의 生命을 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고 교감을 아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인 同 2年(1610)에는 宣祖때 부터 編撰해온 東醫寶鑑이 完成되었다. 本書는 太醫陽平君 許浚이 宣祖 29年에 醫書 撰集의 命을 받들어 儒醫 鄭碯, 太醫 楊禮壽, 金應鐸, 李命源, 鄭禮男 등과 局을 設置하여 撰集을 進行하다가 丁酉亂을 만나 모든 醫員이 사망으로 흩어져 일이 中止되었다. 그 후 宣祖는 許浚에게 단독으로 편찬하게 하고 內藏方書500卷을 대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許浚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두 25卷을 완성하였다.<sup>50)</sup> 이 醫書가 完成되자 光海君은 허준에게 숙마 1필을 하사하여 그 공로를 치하한 다음 곧 內醫院에게 局을 設置하도록 하고 신속히 印出·배포토록 하였다.<sup>51)</sup> 처음에는 이 책을 下 三道(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나누어 보내어 刊刻케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卷帙이 매우 많아 功役의 소비가 적지 않고, 小註의 字數가 細密하므로 刊刻의 艱難이 따른다는 등의 이유로 分送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그 동안 三道에서 준비한 재료들 內醫院에서 木活字로 印出<sup>52)</sup> 하였다. 당시 상황은 光海君 3年(1611) 11月 21日條에 기재되어 있다.

“內醫院에서 啓하기를 「東醫寶鑑」을 下 三道에 나누어 보내어 간행하도록 各 道에 통보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卷帙이 매우 많아서 功役이

49) 光海君 卷十三 元年 己酉二月(太白山本) “先朝 患醫書散失使之設局印出(略) 監印之官 不謹校讐非但甚多(略)多亦漏落(略)監印之官請命拿鞠所印醫書更令醫官校正.”

50) 東醫寶鑑序 “(前略)浚退與儒醫鄭碯, 太醫楊禮壽, 金應鐸, 李命源, 鄭禮男 等設局, 撰集略成肯綮, 值丁酉之亂, 諸醫星散, 事遂寢厥, 後先王又教許浚, 獨爲撰成, 仍出內藏方書五百卷, 以資考據, 撰未半, 而龍馭賓天室, 聖上即位之三年庚戌, 浚始卒業, 而投進目之曰, 東醫寶鑑, 書凡二十五卷(後略).”

51) 「朝鮮王朝實錄」(鼎足山四庫本). 光海君 2年 8月 6日(戊寅). 卷32. 冊8. 2.

52) 本書는 刊行當時 사용된 活字가 乙亥字體 訓練都監字라고 하는 說이 있지만 活字를 訓練都監에서 얻어다가 內醫院에서 刊行했다는 根據가 없다.

적지 않으므로 各處의 보고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各道에다가 材料를 준비 하여서 해가 바뀌면 나누어 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冊은 다른 책과 좀 달라 두 줄로 소주를 써놓아서 字數가 細密하고 刊刻이 매우 어려우며 藥名, 病의 처방이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다면 생명에 관계되는 데, 다만 本冊이 없어서 필사본 一件을 간행했을 뿐이니 의거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萬一 外方에서 印出하게 하면 完成하기에 時日이 걸릴 뿐만 아니라 舛錯이 있을 때는 매우 어렵다. 臣等이 다시 本院(內醫院)에서 별도로 局을 設置하고 活字로 印出하여 醫官에게 校監하게 하되 앞날 醫書 印出時의 例와 같이하면 일이 반드시 成就되고 訛誤의 염려도 없을 것이다. 다만 該司가 物力이 어려우니, 생각하건대 一朔所用의 料布는 米太 모두 18石, 무명 20餘疋에 不過하니 1年の 公역을 통 털어 계산하여도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지금에 담당 官에서 단독으로 마련하려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니 下 三道에 이미 준비된 재료를 각각 수송케 하여 京局의 刊行을 돕는다면 彼此 公私가 모두 便宜할 것이므로 臣等이 다시 印稟합니다하니 傳曰, 啓에 따르게 하다.”<sup>53)</sup>

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東醫寶鑑」刊行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本書는 내의원에서 2年 동안의 공역을 거쳐 光海君 5年(1613)에 목활자로 刊行되었으며,<sup>54)</sup> 英祖 14年(1738) 2月 21日에는 淸의 勅使가 청심환 50환과 함께 가져가기도 하였다.<sup>55)</sup> 또한 「接待事目錄抄」에 의하면 顯宗 3年(1662) 3月에 本書와 「醫林撮要」를 日本에서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 책은 현재 목활자본으로 규장각(1933, 3553)과 국립중앙도서관(한-68-3)에 현전하고 있다.<sup>56)</sup> 「東醫寶鑑」이 완

53) 朝鮮王朝實錄(鼎足山四庫本). 光海君 3年 11月 21日(丙辰). 卷47. 冊11. 10. “內醫院啓曰, 以東醫寶鑑, 分送下三道, 使之刊刻事, 會已啓下, 移文各道, 日月已久, 而卷秩甚多, 功役不貲, 故各處頗報及狀啓, 前後非一, 然猶申飭各道, 整備材料, 歲後卽爲分刊矣, 回念此書與他冊有異小註分行, 字數細密, 刊刻甚難, 藥名病方, 小有差誤, 卽關係性命, 既無本冊, 只以寫出一件繡刻, 更無憑准之路, 今若付之外方, 則非但玩揭稽遲, 完畢無期, 抑恐舛錯訛謬, 終爲無用一本, 臣等爲是之慮, 更爲商量, 則自本院, 別爲設局, 以活字印出, 醫官監校, 如頃日醫書印出時例, 則事必易就, 而又無訛誤之慮矣, 第以該司物力爲難, 竊計一朔該用料布, 則米太并十八石, 木二十餘疋, 不過一年之役, 統計不至大段, 而只今該司獨辦, 則亦恐不易, 下三道業已措備材料量出應入木布, 各自輸送, 以助京局, 則彼此公私, 俱爲便宜, 臣等百爾思之, 此計最優, 敢此仰稟傳曰, 依啓.”

54) 東醫寶鑑」刊記.“萬曆四十一年十一月日 內醫院奉教刊行 監校官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李希憲, 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事臣尹知微.”

55) 「朝鮮王朝實錄」, 英祖 14年 2月 21日(癸卯). 卷47. 冊35. 7.

56) 「東醫寶鑑」, 한-68-3; 內醫院木活字本. 23卷, 目錄, 合25冊: 圖, 四周雙邊, 半葉匡郭: 26.6×16.5cm, 10行21字注雙行, 版心: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6.7×22cm. 序: 萬曆三十九

성되기 1년 전 光海君 4年(1612)에는 「纂圖方論脈訣集成」이 먼저 간행되었으며, 「東醫寶鑑」과 함께 「新纂辟瘟方」도 간행되었다. 「纂圖方論脈訣集成」은 六朝때 高陽生이 編한 「纂圖脈訣」로 조선 초기부터 의과시험의 필수과목이었는데도 오류가 많기 때문에 선조 14년(1581)에 왕명으로 허준이 발췌·교정한 것을 광해군 4年 2월에 內醫院에서 刊行하여 9월에 頒賜한 의서이다. 이 책의 발문을 보면,

“臣에게 下教하시길 「纂圖脈訣」의 내용과 주석에 오류가 있으므로 내가 교정하고 발문을 써서 후일의 참고에 공하라는 말씀이 있었으며, 또한 내가 이것을 간행하고자 하였는데 신의 성품이 용렬하고 학문이 깊지 못한데도 이 명을 받으니 송구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황급히 여러 가지 의서를 근거로 하여 한 두 곳을 바로 잡고 성명을 분별하기 어려운 곳은 저자의 注를 달아 밝히고 사의가 정연치 못한 것은 그곳에 圈域을 표시 하였고, 湯名, 丸名도 없고 陰이 陽으로 바뀌고 豕가 亥로 와전 된 곳을 바로 잡았다.”<sup>57)</sup>

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高陽生의 「纂圖脈訣」이 너무 오류가 많아 宣祖 14年(1581)에 王命에 의하여 許浚이 改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현재 활자본으로는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본이 1991년에 보물 제1111호로 지정되었으며, 목판본으로는 규장각(규중520, 규중2181)과 국립중앙도서관(한-68-16) 등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sup>58)</sup> 이 의서가 出刊된 뒤 4개월 후 백성들의 斑疹을 救急할 목적으로

年(1611)辛亥…李廷龜. 刊記: 萬曆四十一年十一月日 內醫院奉教刊行監校官…李希憲尹知微. 內賜記: 1933: 萬曆四十二年二月日…太白山上. 규장각소장: 1933: 雜病篇 卷6(1冊)缺. 3553: 第2,3,5,7,8,10,13,18(8冊)缺.

57) 「纂圖方論脈訣集成」 1612年(光海君4), 內醫院刊行, 跋: “...教臣曰, 纂圖脈訣文註謬誤, 汝宜校正, 且爲小跋, 以誌其後, 予欲改刊親覽焉, 臣性本庸愚學未欵啓聞命, 柢慄夙夜, 靡遑謹據諸本, 正其一二, 姓名難辨者, 著註以明之, 詞意有紊者, 爲圈, 以斷之湯丸之名, 以陰易陽, 豕亥之訛改(略).”

58) 纂圖方論脈訣集成. 규중520, 木版本. 4卷4冊: 四周雙邊, 半葉匡郭: 21×16.1cm, 有界, 10行 18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 36×23.2cm.

跋: 萬曆九年(1581)…許浚. 刊記: 萬曆四十年(1612)…內醫院奉教開刊

규중2181. 木版本. 4卷4冊: 四周雙邊, 半葉匡郭: 21.5×16.1cm, 有界, 10行17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 31.7×20.7cm. 跋: 萬曆九年??(1581)…許浚. 刊記: 萬曆四十年(1612)閏十一月日 內醫院奉教開刊.

예조에서 內醫院 名醫에게 醫書를 편찬 간행하도록 하여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는 啓請을 올리자 許浚 등에게 속히 撰出케 한 것이다. 光海君 5年(1613) 10月 25日條를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다.

“禮曹가 啓하기를, 近來에 運氣가 고르지 못하여 전염병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斑疹이 가을부터 크게 발생하여 고을 백성들은 대부분 죽어가고 있는데, 이는 前에 없는 드문 증세입니다. 어떤 것은 禁忌에 구애받게 되고 어떤 것은 治療에 어두워 앞서만 그 죽음을 쳐다보고만 있으니 백성들의 요절이 참으로 측은합니다. 內醫院 名醫에게 의서와 경험제방을 널리 참고하고 韓권의 책으로 편찬하여 印出頒布하도록 하소서. 答曰, 許浚 등으로 速히 纂出케하고 厲壇에 기도하여 빌도록 하라.”<sup>59)</sup>

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백성들의 질병으로 인한 醫書印出이 許浚에 의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지만 ‘厲壇에 祈梁케하다’라는 글로 보아 土俗的인 一面도 엿보게 된다. 그 해에 印出된책은 1월에 簡易辟瘟方<sup>60)</sup>, 11월에 東醫寶鑑<sup>61)</sup>, 12월에 新纂辟瘟方, 辟疫神方<sup>62)</sup>이 모두 許浚의 著書로 內醫院에서 刊行되었다. 그러나 上記 內容중 ‘斑疹이 가을부터 熾發’이란 글을 보면, 이 病이 전염병으로 그 병을 예방하고 治療에 관련된 의서로는 簡易辟瘟方<sup>60)</sup>과 「新纂辟瘟方」, 「辟疫神方」<sup>61)</sup>이 확실하다. 이 중 「簡易辟瘟方」은 앞 장에서도 밝혔듯이 中宗 20年(1525)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등이 언해한 의서이다. 현재 규장각에 4종이 소장되어 있다.<sup>62)</sup> 「新纂辟瘟方」은 「辟瘟方」이라는 書名으로 1年前 光海君 4

59)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5年 10月 己酉(25日). 卷71. 冊17. 10. “禮曹啓曰, 近來運氣失序, 疾疫爲災, 天行斑疹, 自秋熾發, 閭閻之人, 多致不救, 此前所稀罕之証也, 或拘於禁忌或昧於治療, 坐視其死, 莫敢下手, 民生天札, 誠爲矜惻, 請令內局名醫, 博考方書, 經驗諸方, 纂爲一書, 印出頒布, 答曰, 今許浚等速爲纂出, 厲壇更爲祈禳.”

60) 「簡易辟瘟方」內賜記 “萬曆 四十一年 正月 日 內賜辟瘟方 一件 五臺山上 右承旨 臣李(手決).”

61) 「辟疫神方」刊記 萬曆 四十一年 十二月 日 內醫院 奉教開刊.

62) 簡易辟瘟方 / 金順蒙(朝鮮) 等受命編: 卍3199, 5227, 5696, 7850, 內醫院木活字. 1冊(25張): 四周雙邊, 半葉匡郭: 22.3×15.5cm, 9行17字注雙行, 版心: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3.3×20.6cm. 序: 嘉靖四年(1525)乙酉正月二十五日…金希壽 奉教謹書. 內賜記: 3199: 萬曆四十一年(1613) 正月日 內賜…五臺山上. 5277: 校書館上. 5696: 太白山上. \*卍 7850: 교정본.

年(1612)에 校書館에서 모든 고을에 전염병이 심하게 퍼지자 救急을 목적으로 印出하여 각 고을에 頒賜했던 冊인데 다시 수정·보완하여 펴낸 의서이다. 이 책 역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1년 보물 제1087호로 지정되었다.<sup>63)</sup> 『辟疫神方』은 內賜記<sup>64)</sup>로 보아 간행된 후 그 이듬해인 光海君 6年(1614) 4월에 頒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규장각에 태백산(奎2406), 오대산(奎2944), 교서관(奎5233)에 각각 반사된 의서가 전하고 있으며, 1991년 보물 제1086호로 지정되었다.<sup>65)</sup>

그 밖에 내의원 간행본으로는 光海君 7年(1615)에 간행된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門<sup>66)</sup>과 仁祖 21年(1643)에 간행된 『神應經』,<sup>67)</sup> 孝宗 5年(1654)에 중간된 『新刊補註銅人脈穴鍼灸圖經』,<sup>68)</sup> 간행년미상인 『臘藥症治方』,<sup>69)</sup> 『診解臘藥

63) 新纂辟瘟方. 규2945,3487,7873,11429, 內醫院木活字本. 1冊(20張): 四周雙邊, 半葉匡郭: 23×15.8cm, 10行18字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33.4×21.4cm. 序: 萬曆四十一年(1613)·李廷龜序. 卷末: 監校官·李希憲[等諸臣銜名]. 刊記: 萬曆四十一年(1613)二月日內醫院奉教開刊. 內賜記: 2945: 萬曆四十一年(1613)九月日 內賜五臺山上. 3487: 校書館上. 11429: 弘文館上. 頒賜記: 7873: 萬曆四十一年(1613)頒. 寶物 제1087호(奎2945, 奎3487, 奎11429).

64) 『辟疫神方』 內賜記 萬曆 四十二年 四月 日 內醫賜 辟疫神方一件 太白山上 左承旨 臣李(手決).

65) 辟疫神方 / 許浚(朝鮮) 奉教撰. 규2406,2944,5233; 內醫院木活字本. 1冊(8張): 四周雙邊, 半葉匡郭: 24.1×15.7cm, 10行19字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34.2×21cm. 표지서명: 辟疫方. 卷末: 監校·李希憲[等諸臣御名]. 刊記: 萬曆四十一年(1613)十二月日 內醫院奉教刊行. 內賜記: 2406: 萬曆四十二年(1614) 四月日內賜·太白山上. 2944: 五臺山上. 5233: 校書館上.

현재 寶物 제1086호(奎2406, 奎5233, 奎2944).

66)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門 1-9 / 李希憲 監校.

光海君 7年(1615); 국립중앙고귀7651-5 內醫院木活字本. 19권 9책 四周雙邊 半郭 22.0x16.1cm, 有界, 10行18字 注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 30.0x20.5cm. 서: 교정 황제내경 소문서...高保衡, 林億 등. 서: 황제내경소문서... 啓玄子, 인출기: 萬曆四十三年(1615)二月 內醫院奉教刊行.

67) 神應經 / 陳會(明) 撰; 劉瑾(明) 重校; 沈器遠(朝鮮) 等奉勅編. 內醫院木活字. 1冊(72張): 圖, 四周雙邊, 半葉匡郭: 21.8×13.4cm, 10行18字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32.4×20.6cm. 重刊序: 成化十年(1474)·韓繼禧. 跋: 癸未(1643)·金埴.

68) 新刊補註銅人脈穴鍼灸圖經 / 王惟一(宋) 編. 奎중1689; 木版本. 5卷2冊: 四周雙邊, 半葉匡郭: 20.7×17.4cm, 有界, 12行19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36×23.2cm. 표지서명, 銅人經. 序: 天聖四年(1026)·夏竦. 刊記: 順治十一年(1654)甲午六月下澣內醫院重刊. 都提調·

症治方」<sup>70)</sup>을 들 수 있다. 기타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에는 康命吉의「濟衆新編」8卷이 內醫院木版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정조 23년(1799)에 내의원 주축으로 편찬이 완성되자 실록에서는 주자소에서 간행을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sup>71)</sup> 李秉模의 서문과 강명길의 발문에는 내각(규장각)에서 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내의원본보다는 내각본으로 봐진다.<sup>72)</sup> 그 이후로 內醫院의 독자적인 醫書 刊行活動이 文獻上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순조 20년(1820)에 간행된 編註醫學入門」<sup>73)</sup>이 내의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면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의서관행에 관여한 것으로 봐진다.

以上の 醫書들은 주로 宣祖末 부터 光海君까지의 醫書들로 內醫院 독자적으로 刊行한 醫書로서 주로 木活字를 이용하였으며 그 후 번각하여 목판본으로도 간행되었다. 당시에 간행한 활자를 내의원자로 보고 현존한 의서를 번각본과 함께 <표>로 작성하여 밝혀둔다.

金埴[等諸臣銜名].

- 69) 臘藥症治方 5張; 四周雙邊 半郭 20.1×15.2cm, 有界, 10行13字 注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 25.4×18cm.
- 70) 診解臘藥症治方奎 3479; 木版本. 1冊(37장): 四周雙邊, 半葉匡郭: 20.7×17cm, 有界, 10行 18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 33.3×22.3cm. 표지서명, 臘藥症治方解. 판심서명: 症治方
- 71) 「朝鮮王朝實錄」正祖 23年 12月 甲午(11日). 卷52. 冊47. 222.
- 72) 濟衆新編 / 康命吉; 국립중앙 고766-20. 內局首醫 康命吉(1737-1801)이 정조 23년(1799) 왕명에 의해 편찬한 의서로 그의 자는 君錫, 본관은 順天이며 군수를 거쳐 楊州牧使를 지냈다. 정조때 왕명에 의해 제증신편 5책을 서술하였으며 정조의 병을 치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형당했다. 내각목판본. 정조 23년(1799). 8권5책, 28.5×18.6cm, 유계, 10행21자 주쌍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 33×21.1cm. 서: 歲己未(1799)...李秉模. 말: 기미...康命吉. 현재 규장각과 한독의학박물관 등에도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 73) 編註醫學入門 1-19 / 李梴. 국립중앙 고7673-76-1-19. 내의원목판본. 내의원, 순조 20(1820) 사주쌍변 반곽 22.8×17.7cm, 유계, 10행19자 주쌍행, 상하향이엽화문어미, 32.3×22.0cm. 말: 上之二十年庚辰...金履喬. 간기: 內局重校戊寅(1818)改刊. 표제: 의학입문. 版口題: 입문.

<表 3> 後期에 간행된 醫書(內醫院字)

書名	刊行年	板本	所藏處
食物本草	宣祖 40年(1607)	木活字	玉山書院?
諺解救急方	宣祖 40年(1607)	轉寫本	韓獨醫藥博物館, 一山文庫
諺解痘瘡集要	宣祖 41年(1608)	木活字	木活字: 가천박물관 소장, 木版:奎, 一囊古615.135-h4du-v.1-2
諺解胎產集要	宣祖 41年(1608)	木活字	奎-235한-68-88
醫林撮要續集	宣祖 41年(1608)	木活字	한고조68-104
纂圖方論脈訣集成	光海君 4年(1612)	木活字	한독의약박물관, 규중2181, 목판: 규중520, 한고조68-16
簡易辟瘟方	光海君 5年(1613)	木活字	규3199,5227,5696,7850
東醫寶鑑	光海君 5年(1613)	木活字	한고조68-3, 규1933,3553
新纂辟瘟方	光海君 5年(1613)	木活字	규2945,3487,7873,11429
辟疫神方	光海君 5年(1613)	木活字	규2406,2944,5233,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光海君 7年(1615)	木活字	국립중앙고7651-5: 동국대610.952-황73×3: 山氣文庫: 誠庵文庫(목판)
神應經	仁祖 21年(1643)	木活字	一囊古615.135j562s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孝宗 5年(1654)	木版本	奎중1689,한고조68-24
臘藥症治方	未詳	木版本	한고조68-112
諺解臘藥症治方	未詳	木版本	奎3163, 3479, 5254
編註醫學入門	純祖 20(1820)	木版本	국립중앙 고7673-76-1-19

上記의 表를 보면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활자본으로 선조 40년(1607)부터 광해군 7년(1615)까지의 의서가 「食物本草」, 「諺解痘瘡集要」, 「諺解胎產集要」, 「醫林撮要續集」, 「纂圖方論脈訣集成」, 「簡易辟瘟方」, 「東醫寶鑑」, 「新纂辟瘟方」, 「辟疫神方」,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등 9종이며, 인조조에 간행된 「神應經」 1종이다. 기타 의서는 木活字 復刻본인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臘藥症治方」, 「諺解臘藥症治方」, 「編註醫學入門」 등이다. 목활자본인 「食物本草」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으며, 「諺解救急方」은 轉寫本으로 전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宣祖 40年(1607)부터 光海君 7年(1615) 까지 內醫院이 독자적으로 木活字나 木版을 利用하여 醫書印出에 전념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시기의 목활자인본을 내의원자본으로 보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본다.<sup>74)</sup>

74) 천혜봉 선생은 광해군 6년(1614)에 훈련도감에서 간행할 때 사용한 사성통해의 활자가

#### 4. 醫學資料室役割

앞 장에서 내의원이 왕실의료담당기구로서의 역할과 의서편찬 및 간행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밝혔다. 본 장에서는 내의원이 의학자료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 근거를 살펴보고 자료실 역할을 수행했다면 어떠한 의서들을 소장했으며, 가장 많이 애용된 의서는 어떤 의서인지, 그리고 이용대상자를 밝히고 의학자료실의 목적을 구명하고자 한다.

내의원이 조선조에 단일주체인 의학자료실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음은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의학자료실로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조선조 3대 왕인 태종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태종은 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권 12년(1412) 春秋館에 소장된 모든 의서를 內藥房에 소장하도록 하였다.<sup>75)</sup> 이것이 조선시대 최초로 의학서적만 별도로 소장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태종은 소장된 의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였으며, 의가에 근본이 되는 의서가 神農氏의 「本草」라 여기고 취재 시 가장 먼저 이 의서를 시험하도록 하였다.<sup>76)</sup> 태종 17년(1417)에는 庾順道가 왕명으로 북경에서 구입한 醫方·五行卜書와 捻金冊 중 <sup>77)</sup> 의서부분도 내약방에 소장되었다. 내약방은 세종 때 내의원으로 변경되면서부터 의학자료실로서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다.

세조 2년(1456)에 전의감 제조 左參贊 姜孟卿이 의학독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내의원에 소장된 의서와 「和劑方」, 「得效方」, 「永類鈐方」, 「鄉藥集成方」, 「衍義本草」, 「銅人經」, 「加減十三方」, 「服藥須知」, 「傷寒指掌圖」 등을 인쇄하여 습독관들이 볼 수 있도록 습독청에 주라는 기록<sup>78)</sup>을 봐도 내의원에 자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많은 의서가 소장되었음을 증빙해 주고 있다. 또한 성종 19년

---

내의원활자와 동일하므로 내의원에서 혼련도감이 소유한 활자를 빌어다 쓴 것으로 보이나 봉교간행의서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활자이므로 내의원자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는 견해다 (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65-68).

75) 「朝鮮王朝實錄」太宗 12年 8月 甲子(12日). 卷24. 冊10. 9.

76) 「朝鮮王朝實錄」太宗 15年 3月 癸丑(15日). 卷29. 冊2. 55.

77) 「朝鮮王朝實錄」太宗 17年 12月 乙未(14日). 卷34. 冊2. 195.

78) 「朝鮮王朝實錄」世祖 2年 8月 癸亥(26日). 卷5. 冊7. 149.

(1488) 10월 11일에 同知中樞府事 成健이 중국 北京에 가서 「東垣拾書」를 구입하여 성종에게 바치면서 하는 말이 “신은 疾病이 많아서 중국에 들어가 이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제 들으니, 內醫院에도 이 책은 있으나 帙이 완전하지 않다기에 감히 바칩니다.”<sup>79)</sup> 등의 기록과 연산군 8년(1502)에도 政朝使 李秉正, 李昌臣 등이 북경에 다녀오면서 구해온 靑囊雜纂, 玉音韻海, 「切韻指南」 등의 책을 바치자 이 중 의학관련 책인 「靑囊雜纂」을 내의원에 하사하여 보존토록 하였다<sup>80)</sup>라는 근거 등은 자료실 수서정책에서 외국자료 구입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의원의 장서는 국내의 편찬의서나 중국의서가 다수를 이루었다. 중국에서 건너온 의서는 물론 중앙이나 지방에서 간행 되는대로 내의원에 소장되었다. 내의원에 소장된 장서량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의서들이 소실되었지만 宣祖朝까지는 500여종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東醫寶鑑」편찬 시 내장방서 500권을 대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東醫寶鑑」서문에 보이고 있다.<sup>81)</sup> 글의 내용 중에서 ‘內藏方書’는 내의원에 소장된 의서를 말한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중국과의 교역을 해서 수집했건 출판을 했건 모두가 내의원에 소장되었다. 경종 2년(1722)에는 譯官 黃夏成이 醫書 「赤水玄珠」<sup>82)</sup> 1秩 51冊을 개인적으로 사서 內醫院에 소장되어<sup>83)</sup> 의서의 수량은 계속해서 증가되었다. 당시 내의원에 소장된 의서는 <표 4>와 같다.

79) 「朝鮮王朝實錄」成宗 19年 10月 辛丑(11日). 卷221. 冊11. 383.

80) 「朝鮮王朝實錄」燕山 8年 3月 丙申(24日). 卷43. 冊13. 481

81) 東醫寶鑑序 “(前略)浚退與孺醫鄭碯, 太醫楊禮壽, 金應鐸, 李命源, 鄭禮男 等設局, 撰集略成肯綮, 值丁酉之亂, 諸醫星散, 事遂寢厥, 後先王又教許浚, 獨爲撰成, 仍出內藏方書五百卷, 以資考據, 撰未半, 而龍馭賓天室, 聖上即位之三年庚戌, 浚始卒業, 而投進目之曰, 東醫寶鑑, 書凡二十五卷(後略).”

82) 赤水玄珠 는 총 30권으로 明代 孫一奎(1522-1619)가 저술하여 1584년에 간행된 의서인데 100여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의서이다.

83) 「朝鮮王朝實錄」景宗 2年 10月 癸亥(11日). 卷10. 冊41. 256.

<表 4> 朝鮮朝 內醫院 所藏本(醫書)

國家	內醫院 所藏本
中國醫書	<p>加減十三方(明, 徐文中), 腳氣治法總要, 簡奇方, 簡要濟衆方, 簡易方, 葛氏方(葛氏肘後方), 甲乙經(西晉, 皇甫謐), 居家必用, 檢屍狀式, 格致餘論, 遺勞方, 經驗秘方, 經驗良方(明, 鄒福), 經驗海上方, 經驗後方, 經驗後集, 高供奉採萍時日歌, 古今錄驗方(唐, 甄立言), 古今醫鑑(明, 龔信), 古今異傳, 賈相公牛經, 郭璞, 管見大全良方, 廣利方, 廣濟方, 廣濟秘笈, 廣州記, 廣志, 救急良方, 救急易方, 隴仙活人心法, 救荒撮要, 局方發揮, 鬼遺方, 勸善書, 極急遺方(明, 葉平賢), 近效方, 急救仙方, 及幼方, 金匱鉤玄, 金匱方(晉, 葛洪; 抱朴子的金匱藥方), 金匱玉函(後漢, 張機; 仲景), 金丹大成, 難經(戰國, 扁鵲), 難經本義, 蘭室秘藏, 南北經驗方, 南陽活人書, 內照圖(後漢, 華佗; 字元化), 內外傷辨(東垣內外傷辨), 魯定公, 雷公, 助道方, 茶經, 丹溪附餘(明, 王綸), 丹溪心法(元, 朱震亨; 字彥脩號丹溪), 丹溪心法附餘(明, 方廣; 字約之 號古庵), 丹房鏡源, 斷病提綱, 澹寮方(澹寮集驗秘方), 譚氏小兒方, 澹軒方, 唐本註, 唐韋宙獨行方, 唐天寶單方圖, 大全本草, 圖經, 圖經本草, 道書八帝聖化經, 陶隱居, 導引方, 東垣試效方<sup>2</sup>, 東垣十書(元, 李杲; 號東垣老人), 東垣用藥珍珠囊, 銅人經, 痘科彙編, 斗門方, 杜壬方, 痘疹會通, 得效方(元, 危亦林; 號達齋), 亂設, 萬病回春(明, 龔信), 明堂經, 明堂圖(唐, 甄權), 明堂灸經, 明理論(金, 成無已), 明醫雜著(明, 王綸; 字汝言), 梅師方, 脈訣(西晉, 王叔和), 脈訣(宋, 劉元賓; 號通真子), 脈訣理玄秘要, 脈經(西晉, 王叔和), 孟詵, 穆天子傳, 茆亭客話, 無求子活人書, 聞驗方, 博物志, 博信方, 拔粹方, 百病鉤玄(明, 王履; 字安道), 百要方, 百一選方, 范汪方(東晉, 范汪), 范子計然, 范勝之, 別本註, 別錄, 別說, 兵部手集, 病源(隋, 巢元方), 普救方, 保童秘要, 服氣精義, 福壽論, 服藥須知(宋, 溫大明), 本事方(宋, 許叔微), 本草(神農氏), 本草補遺(宋, 龐安常), 本草序例, 本草拾遺(唐, 陳藏器), 本草音義(唐, 甄立言), 本草集方, 本草集要(明, 王綸), 婦人大全良方(婦人良方; 明, 熊宗立; 號道軒), 備急方, 備預百要方, 備用本草經史證類(宋, 唐慎微), 脾胃論, 秘傳外科方, 事文類聚, 事林廣記, 嗣伯, 四時纂要, 產科保慶集, 產經, 山居四要, 產寶方, 產寶諸方, 產育保慶集, 三法六門, 三因方(宋, 陳無擇), 三元參贊延壽書(元, 李鵬飛), 詳定本草, 傷寒論(後漢, 張機), 傷寒明理論, 傷寒論註解, 傷寒百問歌, 傷寒百證歌, 傷寒瑣言(明, 陶華; 字尚文 號節庵), 傷寒類書, 傷寒指迷論(宋, 錢乙; 字仲陽), 傷寒指掌, 傷寒直格, 傷寒活人書, 塞上方, 徐云効驗方, 徐氏胎產方, 瑞竹堂方, 宣明論(金, 劉完素; 字守真), 仙傳濟陰方, 省翁活幼口議, 聖惠方(宋, 諸太醫), 聖濟總錄(宋, 諸太醫), 聖效方, 世醫得效方, 洗冤錄, 蘇恭, 素問, 素問藥證, 素問註(唐, 王冰), 素問玄機(金, 劉完素), 蕭炳, 巢氏病源, 小兒宮氣方, 小兒痘疹方, 小兒方(宋, 錢乙), 小兒藥證, 小兒瘡疹方, 小品, 蘇學士, 續十全方, 續醫說(明, 倪維德; 字仲賢), 孫尚藥方, 孫尚藥救急, 孫兆方, 孫用和, 孫真人備急, 孫真人食器, 孫真人枕中記, 瑣碎錄, 壽民妙詮, 壽域神方, 水牛經, 脩月魯般經, 袖珍方, 修真秘訣, 修真秘旨, 修真神仙方, 修月魯般經, 壽親養老書, 勝金方, 乘閑方, 施圓端效方, 是齋醫方, 食物本草, 食療本草(唐, 孟詵), 食譜, 食醫心鑑, 食醫心鏡, 新刻參補針醫馬經大全, 神巧萬全方, 神仙截法, 神仙太乙紫金丹方, 神隱, 神應經(明, 劉瑾), 神應鍼經(宋, 許希), 臣禹錫等, 新註銅人經, 新註無冤錄, 新效方, 神效名方, 沈存仲筆談, 十四經發揮, 十全方, 十全博救方, 十全補救, 十形三療, 眼科記本總論, 安驥集, 安胎通用藥, 野人閑話,</p>

	<p>野人閑話朱真人靈驗篇, 藥訣, 藥對(後周, 徐之才), 藥性論, 藥性炮灸(雷斅), 梁簡文帝勸醫文, 養老奉親書, 楊文公談苑, 養生主論(元, 王珪; 字均章), 養生必用方, 楊氏方, 楊氏家藏方, 楊損之, 楊氏產乳, 良濟方, 良濟備急, 御藥院方, 嚴氏濟生方2, 嚴氏濟生續方, 黎居士簡易方, 黎居士決脈精要, 易產滑胎方, 延壽書, 衍義(本草), 烟霞聖效方, 靈苑方, 永類鈴方3(元, 李仲南; 字棲季), 靈樞, 吳氏(吳氏集驗方), 五臟論, 五臟六腑圖, 玉機微義(元, 劉純; 字宗厚), 玉龍歌, 姚大夫(姚氏方, 姚和衆), 龍樹菩薩眼論, 王嶽產書, 王氏簡易方, 王氏博濟方, 王氏濟衆方, 王氏集驗方, 外科發揮(明, 薛己), 外科精義, 外科精要, 外科集驗方, 外臺秘要(隋, 王燾), 外臺延年方(延年方), 運化玄樞, 儒門事親書(金, 張從政; 字子和), 玉機微義, 玉山韓光方, 玉龍歌, 玉函經, 癰疽通用藥, 禹貢註, 運氣, 儒門事親, 原病式(金, 劉完素), 酉陽雜俎, 劉涓子, 劉禹錫傳信方, 遺篇, 衛生方, 衛生寶鑑(元, 羅謙甫; 字益之), 衛生續方, 衛生十全方, 衛生易簡方, 韋宙獨行方, 醫家大法(元, 王好古), 醫經小學, 醫經溯源集, 醫壘元戎(元, 王好古; 號海藏), 醫林方, 醫林集要(明, 王璽), 醫方大成, 醫方集成, 醫方集略(明, 郭鑿), 醫說(宋, 張穰; 字子充), 醫藥論註解, 醫通(明, 韓翥; 號飛霞道人), 醫學綱目(明), 醫學權輿(明, 虞搏), 醫學入門(明, 李梃), 醫學正傳(明, 虞搏(字天民)), 醫學集成(明, 虞搏), 易簡方, 理傷續斷方, 李氏本草, 耳珠先生固牙齒法, 李唏范脈訣, 日華子本草(宋, 不名), 臨海異物志, 臨海志, 子母秘錄, 子午流注, 資生經, 煮硝方, 張文仲(張仲文傳), 張氏六門方, 掌陰比事, 張子和方, 雜記九門, 錢相公僊中方, 典術, 全嬰方, 錢氏方, 錢氏小兒方, 正俗, 制勝方略, 種藟譜, 種杏仙方(明, 龔信; 字廷賢), 中惡通用藥, 朱氏經驗方, 朱氏集驗方, 肘後方(晉, 葛洪), 增補萬病回春, 增修無冤錄, 證治要訣(元, 戴元禮; 號復菴), 至正條格, 直言治病方, 直指脈訣, 直指方(宋, 楊士瀛; 字登父), 直指方論醫真經, 直指小兒方, 陳室中方, 疹疫方, 陳藏器, 眞珠囊, 集成方, 集驗方(後周, 姚僧垣), 纂圖脈訣, 纂文, 瘡科精義, 瘡科通玄論, 採藥對(桐君), 採藥別錄(桐君), 千金方(唐, 孫思邈; 號地仙), 千金翼方, 千金髓, 千金月令, 川玉集傷寒論2, 天元玉冊(伏羲氏), 初虞世, 蜀本(蜀本註), 撮要新書, 崔元亮海上方, 崔豹古今註, 至教論(雷斅), 治病百法, 治法雜論, 針經(西晉, 皇甫謐), 鍼經指南, 鍼灸經, 鍼灸廣受書括, 湯氏, 湯液本草(殷, 伊尹), 湯液本草(元, 王好古), 胎產救急方, 太清伏鍊靈砂法, 太清諸草木方, 通子傷寒, 抱朴子(抱朴子內篇), 必效方, 必用全書, 必用之書, 夏禹神仙經, 河中樞方, 海上名方, 海上仙方, 海藥, 玄珠密語(唐, 王冰), 壺居士, 和劑方, 活幼新書(宋, 陳文中), 活人書(宋, 朱肱; 號無求子), 活人總括, 黃帝內經素問</p>
<p>韓國醫書</p>	<p>濟衆立效方(高麗, 金永錫), 鄉藥古方, 御醫撮要方(高麗, 高宗 13; 1226, 崔宗峻), 診脈圖訣(鄭道傳 撰, 高麗 恭讓王 元年, 1389- 東文選 卷105 李崇仁의 陶隱集에 기록됨), 東人經驗方, 鄉藥惠民方, 鄉藥救急方(太宗 17, 1417, 현 일본 宮內省圖書寮에 소장), 三和子方(高麗末), 鄉藥簡易方(高麗), 鄉藥濟生集成方(太祖 7년, 1398), 本朝經驗(太宗- 世宗), 產書(世宗 12, 1430), 鄉藥採取月令(世宗 13, 1431,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등), 新編集成牛馬醫方(定宗 元年, 1399), 鄉藥集成方(世宗 15, 1433), 胎產要錄(世宗 16, 1434 盧重禮), 醫方類聚(世宗, 全循義 등), 鍼灸擇日編集(世宗 29, 1447, 全循義, 金義孫), 撮要新書(朴興生), 食療纂要(世宗, 全循義), 瘡疹集(世祖, 任元濬), 救急方(世祖), 新撰救急簡易方(成宗 20, 1489), 醫方要錄(成宗 24, 1493, 許 玘), 神仙太乙紫金丹方(燕山君 3, 1497), 救急易解方(燕山君 4), 救急簡易方諺解(成宗 20, 1489, 尹壕), 惡病治療方(成宗 初), 醫門精要(成宗, 許琮), 河中樞方(成宗), 願生錄(中宗 18; 1523, 鄭惟仁), 簡易辟瘟方(中宗 19; 1524),</p>

<p>村家救急方(中宗 33; 1538, 金正國), 牛馬羊猪染疫治療方(中宗 36, 1541), 分門瘟疫易解方(中宗 37; 1542, 金安國), 黃疸瘧疾治療方(明宗 5; 1550), 妊娠撮要方(明宗), 治腫秘方(明宗 14; 1559), 救急良方(明宗), 治腫指南(明宗, 任彥國), 鄭北窓方(明宗), 醫林撮要(宣祖, 鄭敬先), 纂圖方論脈訣集成(宣祖 14; 1581, 許浚), 鍼灸要訣(宣祖 33; 1600, 柳成龍), 諺解痘瘡集要(宣祖 34; 1601, 許浚), 諺解救急方(宣祖 40; 1607, 許浚), 諺解胎產集要(宣祖 41; 1608, 許浚), 治瘡易驗(宣祖), 治瘡方(宣祖), 東醫寶鑑(光海君 5; 1613, 許浚), 新纂辟瘟方(光海君 5; 1613, 許浚), 辟疫神方(光海君 5; 1613, 許浚), 救荒撮要(仁祖 17), 鍼灸經驗方(仁祖 22, 許任), 四醫經驗方, 痘瘡經驗方(顯宗, 朴震禧), 辟瘟新方(孝宗 4; 1653, 安景昌), 諺解臟藥症治方(內醫院), 馬經抄集(仁祖, 李曙), 馬經抄集諺解(仁祖, 李曙), 舟村新方(肅宗 13; 1687, 申晏), 及幼方(肅宗 15; 1689, 趙廷俊), 醫門寶鑑(景宗 4년, 1724, 周命新), 草窓訣(英祖 元年, 1725, 尹東里), 妊娠疹疫方(英祖 28, 1752), 麻疹奇方(英祖 35, 1759, 李獻吉), 幼幼一心(正祖, 李廷揖), 麻疹篇(正祖 10, 1786, 劉爾泰), 廣濟秘笈(正祖 14, 1790, 李秉模), 增修無冤錄, 煮硝方(正祖 20), 麻疹彙成(정조 22, 1798, 李元豐), 壽民妙詮(正祖 撰), 通文集(康命吉), 麻科會通(正祖 22, 1798, 丁若鏞), 單方新編(丁若鏞), 醫零(丁若鏞), 濟衆新編(正祖 23, 1799, 康命吉), 痘科彙編(純祖 7, 1807), 時種通編(純祖 17, 1817, 李鍾仁), 瘍醫微(純祖, 李宜春), 龍山療痘編(憲宗 13, 1847, 李蕃), 附方便覽(哲宗 6, 1855, 黃度淵), 醫宗損益(高宗 5, 1868, 黃度淵),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高宗 6, 1869, 黃度淵), 方藥合編(高宗 22, 1885, 黃度淵), 牛痘新說(高宗 22, 1885, 池錫永)</p>
------------------------------------------------------------------------------------------------------------------------------------------------------------------------------------------------------------------------------------------------------------------------------------------------------------------------------------------------------------------------------------------------------------------------------------------------------------------------------------------------------------------------------------------------------------------------------------------------------------------------------------------------------------------------------------------------------------------------------------------------------------------------------------------------------------------------------------------------------------------------------------------------------------------------------------------------------------------------------------------------------------------------------------------------------------------------------------------------

<表 4>는 조선조에 활용도가 높은 의서를 위주로 조사된 것이다. 중국본은 조선조 광혜군 이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으며, 한국본은 내의원이 개편되기 까지를 조사하여 시기별로 조사하여 밝혔다. 주로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 「東醫寶鑑」에서 인용된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밝혔다. 「鄉藥集成方」에서는 300여종, 세종 27년에 완성한 「醫方類聚」에도 153종 이상의 의서가 인용되었고, 허준의 東醫寶鑑 에 밝힌 의서만 해도 86종이나 필자가 조사해서 밝힌 참고의서는 220여권에 달했다.<sup>84)</sup> 중복 인용된 자료를 제외하면 중국의서가 407종, 한국 의서가 87종 총 494종이 조사되었다. 본 의서들은 모두 내의원에 소장된 의서로 볼 수 있다.

내의원에 소장된 의서 중 가장 이용률이 많은 의서는 조선 초기에 直指脈, 纂圖脈, 直指方, 和劑方, 傷寒類書, 和劑指南, 醫方集成, 御藥院方, 濟生方, 濟

84) 金重權, “東醫寶鑑의 文獻의 研究,” 『서지학연구』 제11집(1995).

生拔粹方, 雙鍾處士活人書, 衍義本草, 鄉藥濟生集成方, 針灸經, 補註銅人經, 難經, 素問, 聖濟總錄, 危氏得方, 寶氏全嬰, 婦人大全, 瑞竹堂方, 百一選方, 千金翼方, 牛馬醫方 등이다. 이들은 세종 12년에 의학취재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sup>85)</sup> 素問, 「張子和方」, 「小兒藥證」, 「瘡疹集」, 「傷寒類書」, 「外科精要」, 「婦人大全」, 「產書」, 「直指方」, 「銅人經」, 「本草」, 「纂圖脈經」 등은 세조 10년에, 「素問」, 「本草」, 「直指方」, 「纂圖脈」, 「外科精要」, 「瘡疹集」, 「張子和方」, 「得效方」, 「婦人大全」, 「傷寒類書」, 「資生經」, 「和劑方」 등이 성종 2년에, 「纂圖脈」, 「瘡疹集」, 「直指方」, 「救急方」, 「婦人大全」, 「得效方」, 「胎產集要」, 「銅人經」, 「和劑方」, 「本草」, 「資生經」, 「十四經發揮」 등이 성종 3년에 취재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 의서들은 계절별 취재 시에 입도록 한 의서로 성종조에 와서 세조때 취재과목인 「小兒藥證」, 「傷寒類書」, 「外科精要」, 「產書」가 제외되고 「救急方」, 「得效方」, 「胎產集要」, 「和劑方」, 「資生經」, 「十四經發揮」 등이 추가되었다. 「鄉藥集成方」이나 「醫方類聚」의서를 편찬할 때는 「聖惠方」, 「聖濟總錄」, 「千金方」, 「圖經」, 「日華子」, 「婦人大全良方」, 「藥性論」, 「陶隱居」, 「陳藏器」, 「肘後方」, 「得效方」, 「經驗良方」, 「資生經」, 「唐本註」, 「本草」, 「孟詵」, 「外臺秘要」, 「百一選方」, 「直指方」, 「三和子方」, 「蜀本」, 「食療」, 「經驗秘方」, 「本朝經驗」, 「三因方」, 「拔粹方」, 「孫真人」, 「梅師方」 등이 많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東醫寶鑑」 편찬시는 「本草」, 「醫學入門」, 「丹溪心法」, 「得效方」, 「醫學綱目」, 「古今醫鑑」, 「醫學正傳」, 「東垣十書」, 「萬病回春」, 「黃帝內經素問」, 「銅人經」, 「直指方」, 「傷寒論」, 「靈樞經」, 「資生經」, 「局方發揮」,<sup>86)</sup> 「俗方」, 「活人書」, 「三因方」, 「湯液本草」, 「脈經」, 「本事方」, 「婦人大全良方」, 「易老方」, 「醫方類聚」 등이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보면, 내의원 소장본 중에 본 의서들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의서습독관 및 내의원 의관들이 주된 이용자였다. 이들은 자발적이거나 왕명으로 인해 내의원의 의서를 이용하였다. 참고로 세종은 박연, 김예몽,

85) 「朝鮮王朝實錄」世宗 12年 3月 戊午(18日). 卷47. 冊3. 225.

86) 이 책은 元代 朱震亨이 찬한 醫書로 「東醫寶鑑」에서 인용빈도가 168회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허준의 참고문헌에 기재되지 않았다.

유성원 등을 불러 내의원에서 의학서적을 7일간 읽도록 한 적이 있으며,<sup>87)</sup> 성종조에는 많은 의서를 읽도록 습독관제도를 강화하였다. 습독관 자격은 선비가족 중에서 충민한 자를 선발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는 의서를 전문적으로 읽도록 하고, 독서기간은 책의 분량의 다소에 따라 지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의서를 통달한 자에게 벼슬을 주되 내의원직을 겸하게 하는 특전을 주기도 하였다.<sup>88)</sup> 이러한 근거들은 조선조 내의원에 많은 양의 의서를 보존하면서 습독관이나 의관들에게 읽혀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내의원이 의학자료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의원 자료실의 목적은 의원들에게 신속한 의학정보를 입수하도록 하여 의서편찬이나 각 질병의 판단과 처방 등에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고, 의관들의 의술 향상과 왕실의 무병장수, 나아가 의학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 5. 結 言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고려조에 尙藥局이 조선 태조 때 내약방으로 그 기능을 다 하였으며, 다시 세종 25년에 내약방은 내의원으로 개칭되었다. 내의원에 소속된 의원들은 의술에 능통한 자라야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임금의 의약뿐만 아니라 王室의 상황에 따라서 侍藥廳, 產室廳, 護產廳, 醫藥廳 등을 부설로 설치하여 왕족의 건강을 위해 많은 의술활동을 펼쳐왔으며, 약재관리, 약재채취방법 홍보, 감별, 조제감사, 약재무역, 양조, 의서편찬, 간행 등을 담당하였으며, 기타 고위관직에 있는 신하들의 질병도 치료한 경우도 있었다.
- 2) 의서편찬은 내의원 소속의원들이 담당하였으며, 전기에는 中宗때 내의원의 의서편찬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의원 산하에 醫書撰集廳을 設置

87) 「朝鮮王朝實錄」, 世宗 32年 1月 戊戌(22日). 卷127. 冊5. 161.

88) 「朝鮮王朝實錄」, 成宗 3年 3月 庚戌(14日). 卷16. 冊8. 644.

- 하여 診解辟瘟方, 診解瘡疹方, 「簡易辟瘟方」, 「分門瘟疫易解方」 등이 刊行되었으며, 이 때 간행된 의서가 허준의 의서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3) 임진왜란 후에는 많은 의서들이 소실되자 내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재료를 준비하여 의서를 간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宣祖 40年(1607) 부터 光海君 7年(1615) 까지 內醫院이 독자적으로 醫書印出에 전념하였다. 당시 의서관행에 활용한 활자는 목활자로 이를 내의원자라 한다. 내의원자로 이 기간에 간행된 의서는 「食物本草」, 「診解痘瘡集要」, 「診解胎產集要」, 「醫林撮要續集」, 「纂圖方論脈訣集成」, 「簡易辟瘟方」, 「東醫寶鑑」, 「新纂辟瘟方」, 「辟疫神方」,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등 총 10종과 인조조에 간행된 「神應經」 1종이다. 「神應經」은 仁祖 21年(1643)에 간행된 의서로, 素問(1615)과의 간행 간격이 28년 차인데 내의원에서 내의원자로 간행했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타 의서는 내의원자 復刻本으로 판단된다.
- 4) 조선조 태종 때부터 내의원에서 주제전문자료실인 의학자료실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밝혔다. 내의원에 소장된 자료를 중국 의서와 한국 의서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당시 가장 많이 열람된 의서 및 이용대상자와 그 목적을 밝혔다.

## <참고문헌>

### 1. 原典

- 「簡易辟瘟方」.
- 「經國大典」.
- 「高麗史」.
- 「救急良方」.
- 「救急易解方」.
- 「內醫院式例」.

- 「大典通編」.
- 「東醫寶鑑」.
- 「分門瘟疫易解方」.
- 「續大典」.
- 「新東國輿地勝覽」.
- 「診解救急方」.
- 「診解痘瘡集要」.
- 「診解胎產集要」.
- 「六典條例」.
- 「醫林撮要續集」.
- 「醫方類聚」.
- 「增補文獻備考」.
- 「鄉藥集成方」.
- 「朝鮮王朝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
- 「鄉藥集成方」: 완역본. 서울: 일월서각 1993.

## 2. 單行本

-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66.
- 金信根. 「韓國醫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 3. 論文

-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 서지학연구 제19집 (2000), 34-72.
- 김정선, 황상익. “조선후기 내의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경향.” 『의사학』 제16권 제2호(통권 제31호, 2007년 12월), 151.

김중권. “내의원의 의서간행.” 문헌정보학보 제5집(1993),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30주년 기념특집호.

김중권. “내의원자본에 관한 연구.” 의서문헌정보학보 제4호(1994),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 10주년 기념논총.

金重權. “東醫寶鑑의 文獻的 研究.” 서지학연구 제11집(1995).